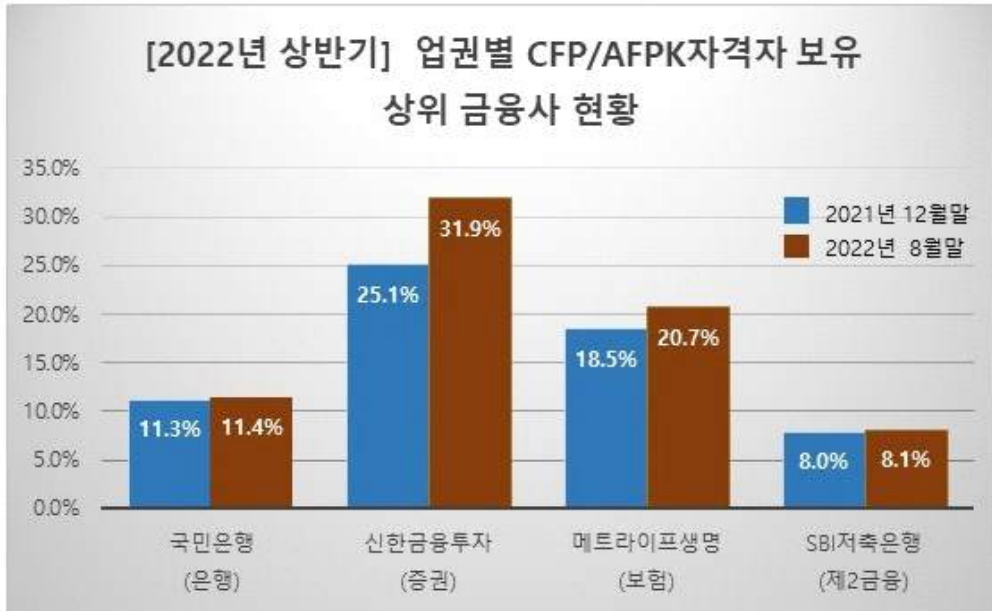


	<b>보 도 자 료</b>		
	보도일	배포 즉시	
	배포일	2022.9.27.(화)	
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17층 한국FPSB 김지욱 팀장 / 02-3276-7612, <a href="mailto:jwkim@fpsbkorea.org">jwkim@fpsbkorea.org</a> <a href="mailto:gio0703@gmail.com">gio0703@gmail.com</a>			

**제목: 한국FPSB, 금융기관별 재무설계 전문자격 보유 비율 발표**  
**- 신한금융투자가 31.9%로 1위**



- 한국FPSB(회장 김용환)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자산관리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재무설계전문가(CFP 및 AFPK 자격자의 합계) 보유현황을 지난 22일 발표했다.
- 지난 8월말 기준으로 해당 금융업권 내에서 임직원수 대비 자격자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금융사는 국민은행, 신한금융투자, 메트라이프생명, SBI저축은행으로 나타났다.

- 자료에 따르면, 전체 업권별로는 증권업이 11.2%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, 은행업과 보험업은 각각 7.1%와 6.1%로 뒤를 이었다.
- 개별 금융사로 보면 신한금융투자가 가장 두드러졌는데, 작년 12월말 기준 25.1%에서 6.8%가 늘어나 31.9%가 되었다. 보험업권은 메트라이프생명이 20.4%로 2.2%가 올랐다. 은행업은 국민은행(11.4%)과 신한은행(10%) 그리고 SBI저축은행(8.1%)으로 비슷한 수준이다.
- 신한금융투자의 자격자 수는 작년 상반기 281명에서 무려 3배가 넘는 836명이 되었는데, 이는 종합재무설계 능력을 갖춘 고객중심 자산관리 전문가 양성 차원에서 자격자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.
- 신한금융투자 관계자에 따르면, “60여명의 AFPK자격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제42회 CFP자격시험(9월 24일~25일) 준비 특별반을 구성하고,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특강, 카카오톡을 활용한 합격스터디 등의 교육환경을 제공했다.” 고 밝혔다.
- 증권업에서 CFP자격자 보유 상위사는 삼성증권 148명, 미래에셋증권 64명, NH투자증권 59명 순이고 신한금융투자는 41명으로 4위인데, 이번 특별반의 시험 결과에 따라, 향후 CFP자격자 보유 순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.
- 독립보험대리점(GA)에서는 한국재무설계가 43.3%로 다른 GA들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자격자 보유율을 유지하고 있다. 한국재무설계는 주요 기업에 임직원 복지 재무설계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, 상반기에 CFP자격 3년 실무경험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‘CFP 실무연수 집중 프로그램’ 1호 수료자를 배출하기도 하였다.
- 올해 마지막 AFPK자격시험은 11월 12일에 치러질 예정이며, 접수기간은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한국FPSB 홈페이지에서 한다.

참조자료. 금융회사별 임직원 수 대비 자격인증자 비율 (2022년도 8월 말 기준)

금융회사별 임직원 수 대비 자격인증자 비율

(단위:명)

업종	회사명	임직원	AFPK		CFP		AFPK+CFP	
			인증자 수	비율	인증자 수	비율	인증자 수	비율
은행	국민은행	16,830	1,690	10.0%	225	1.3%	1,915	11.4%
	신한은행	14,077	1,090	7.7%	321	2.3%	1,411	10.0%
	경남은행	2,289	206	9.0%	30	1.3%	236	10.3%
	한국씨티은행	2,752	218	7.9%	74	2.7%	292	10.6%
	우리은행	13,787	743	5.4%	211	1.5%	954	6.9%
	NH농협은행	16,345	732	4.5%	191	1.2%	923	5.6%
	하나은행	12,301	568	4.6%	167	1.4%	735	6.0%
	부산은행	3,028	79	2.6%	31	1.0%	110	3.6%
	한국SC은행	3,712	83	2.2%	25	0.7%	108	2.9%
	기업은행	13,970	271	1.9%	81	0.6%	352	2.5%
소계	99,091	5,680	5.7%	1,356	1.4%	7,036	7.1%	
보험	메트라이프생명	624	100	16.0%	29	4.6%	129	20.7%
	삼성생명	5,178	358	6.9%	138	2.7%	496	9.6%
	동양생명	940	63	6.7%	17	1.8%	80	8.5%
	교보생명	3,589	184	5.1%	49	1.4%	233	6.5%
	한화생명	2,675	99	3.7%	22	0.8%	121	4.5%
	삼성화재	5,653	94	1.7%	92	1.6%	186	3.3%
	KB손해보험	3,063	62	2.0%	25	0.8%	87	2.8%
소계	21,722	960	4.4%	372	1.7%	1,332	6.1%	
금융투자	신한금융투자	2,622	795	30.3%	41	1.6%	836	31.9%
	한화투자증권	1,177	230	19.5%	18	1.5%	248	21.1%
	NH투자증권	3,094	348	11.2%	59	1.9%	407	13.2%
	삼성증권	2,632	97	3.7%	148	5.6%	245	9.3%
	KB증권(주)	3,016	229	7.6%	18	0.6%	247	8.2%
	미래에셋증권	3,780	103	2.7%	64	1.7%	167	4.4%
	교보증권	998	29	2.9%	4	0.4%	33	3.3%
	한국투자증권	2,989	75	2.5%	21	0.7%	96	3.2%
소계	20,308	1,906	9.4%	373	1.8%	2,279	11.2%	
제2금융	저축은행	9,970	183	1.8%	22	0.2%	205	2.1%
	새마을금고 <sup>주2)</sup>	29,142	457	1.6%	51	0.2%	508	1.7%
	신협 <sup>주1)</sup>	17,656	201	1.1%	14	-	215	1.2%
	농협 <sup>주1)</sup>	94,109	634	0.7%	159	0.2%	793	0.8%
	우체국	-	160	-	14	-	174	-
국민연금공단	-	270	-	11	-	281	-	
주요 저축은행	SBI저축은행	618	46	7.4%	4	0.6%	50	8.1%
	OSB저축은행	219	19	8.7%	-	0.0%	19	8.7%
	웰컴저축은행	775	7	0.9%	3	0.4%	10	1.3%
	OK저축은행	967	12	1.2%	1	0.1%	13	1.3%

※ 인증자 수 : (2022. 08 기준), 임직원 수 : 금융통계정보 자료(2022. 03 기준)

주1) 2021.12 기준

주2) 2017.12 기준

법인독립대리점 설계사수 대비 자격인증자 비율

주요 법 인독립 대리점 (GA)	한국재무설계	215	58	27.0%	35	16.3%	93	43.3%
	키움에셋플래너	612	33	5.4%	8	1.3%	41	6.7%
	피플라이프	3,760	44	1.2%	21	0.6%	65	1.7%
	에이플러스에셋	4,395	33	0.8%	20	0.5%	53	1.2%
	더블유에셋	2,618	24	0.9%	7	0.3%	31	1.2%
	프라임에셋	8,380	39	0.5%	8	0.1%	47	0.6%
	지에이코리아	14,157	24	0.2%	15	0.1%	39	0.3%
	소계 <sup>주1)</sup>	34,137	255	0.7%	114	0.3%	369	1.1%

※ 설계사 수 :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조회 (2022. 06 기준), 기관 확인

끝.